

#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영화 음악·연주 등 감미로운 선율 선보여... 준비대면 방식 유튜브 생중계

제2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열려 감미로운 음악을 선보이면서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2일 오후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정기연주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원 가족에 한해 최소한의 인원만 관람이 가능했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준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무주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 성립고속관광, 픽스기획이 후원하는 것으로, 공연 실황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가 됐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맡고 있는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관우)에 따르면 이날 공연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과 겨울왕국의 Music from FROZEN,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등 유명한 영화 음악이 선보였다.

여기에는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파트의 연주와 실력과 강사진들의 연주 등 8곡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안미영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은 "작년에는 무관객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연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며 "지난해 보다 더 성장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강사들과 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제2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22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상호호흡'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하고 다면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국고 보조를 받아 지원·운영한다.

현재 무주군을 비롯한 전국 49곳의 시·군·구 소재 거점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는 관내 8~13세 취약계층 아동 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음악감독 1명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호른, 트럼본, 타악기 등 악기별 강사 12명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명작 시리즈 2 '헨델의 메시아' 연주회

12월 23일 군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군산시립합창단은 깊어가는 겨울을 알리는 제107회 정기 연주회(시립예술단 합동공연)를 오는 12월 2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명작 시리즈 2 <헨델의 메시아>'라는 주제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산시립합창단 제8대 상임 지휘자 김영진의

지휘로 열리는 헨델의 메시아는 서양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다. 음악적, 역사적으로 전세계 음악인들이 사랑하는 헨델의 메시아는 지난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 사이 영국 런던에서 작곡한 오라토리오(종교적 극음악)다. '메시아'의 필사본은 259페이지에 달하며 헨델은 2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작품을 완성했다. 필사본의 마지막에 헨델

은 "SDG"(Sol Deo Gloria, 오직 신께 영광)라고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소프라노 서활란(숙명여대, 명지대 겸임교수), 베이스 정원영(서울 시립대 외래교수)의 협연과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반주로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17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사업 선정

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관장 이재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21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신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 '놀로! 꿈쟁이 출쟁이'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향유능력 제고와 또래 간, 가족 간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

주말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완주향토예술평화회관은 이번 공모사업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돼 총 8백여 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완주군의 문화예술 접근도가 낮은 지역 아동, 청소년들에게 공연 관람예절, 예술감상 기법을 배양해 가족 및 지역주민

들과 함께 즐겁고 건전한 토요 놀이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정 관장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적용 정책 및 방역수칙을 엄수해 안전하고 신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통 판각에 마음 담은 작품 선보인다

전주 완판본문화관, 대장경문화학교 전통 판각 회원전 개최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시를 소재로 한 이채로운 판각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대장경문화학교 전통 판각 강좌를 수료한 12기와 13기들이 문체 작품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전주 완판본문화관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부터 대장경문화학교에서는 자칫 잊힐 뻔했던 우리 판각의 맥을 이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하나로 대장경문화학교에서는 완판본 전통 판각의 맥(脈)을 잇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각 강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동작품 '나무를 읽다' 외에 개인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시를 나무에 새기면서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기고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했다. 회원 작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나무에 옮겨낸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나무를 섬세하게 다룬 회원들의 솜씨도 근사하지만 단아한 은행나무에 새겨진 시의 행간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안준영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완판본 문화를 이어가고자 노력했다"며 "판각 강좌 회원들이 글자 한 획, 한 획에 시간을 더하고 마음을 담은 시(詩) 한 조각을 걸어줬으니, 따뜻한 발걸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서 신용구 '색을 품다. 있다. 꿈.' 전시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함께하는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에서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구의 <색을 품다. 있다. 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이미지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신용구의 <색을 품다. 있다. 꿈.>은 한복의 조형이 아닌 색(色)이 주는 실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품으로, 한복의 주재료인 모시로 만든 60여 송이의 대형 꽃들이 설치되며 그 중

한 송이는 남원의 청소년들이 직접 천연염색을 하고 바느질해 그 의미를 더한다.

작가는 "한복의 주재료였던 모시로 만든 붉은 꽃은 생명과 존재의 이유를 상징한다. 사람들이 겨울에 핀 붉은 꽃 속을 거닐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작품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한 신용구의 이미지 퍼포먼스 공연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는 27일 오후 2시, 미술관 야외 수중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